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5, No.6 (Sep. 2005) pp.97-108

패션리더로서의 재클린 케네디의 의상 연구

장 성 은* · 정 혜 정**
서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서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Jacqueline Kennedy's Clothing as a Fashion Leader

- in the White House Years(1961-1963) -

Sung-Eun Jang* · Hye-Jung Chung**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oKyeo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okyeong University**
(2005. 3. 17 투고)

ABSTRACT

Jacqueline Kennedy was one of first lady in America and made many influence on the fashion of the woman at that time. She made the first American fashion style. Jacqueline became a prominent model and style-setter in fashion world. She created peculiar fashion style which is called 'Jacky style' and her fashion power of influence appears in the present time. At that time, Haute Couture of France had led the world fashion, however since Jacqueline style came into fashion, American beauty and elegance was introduced to other countries. This study reviews the representative fashion item of Jacqueline Kennedy who was one of the fashion leader in the world. The result to appear in her style is as follows. First, Jacqueline could express the young fashion that young people wanted a progressive and new thing because she was much younger than their predecessors. Second, she made her image bright and young, so she became a representative person who expressed 'changing America women'. She created a new appearance which is very simple in design, practical in function and elegant and it is turned into the typical style of American high fashion. Finally, through Jacqueline's fashion, not only she made the image of America upper classes that is very elegant and grace without dependence on the fashion of France, but also she is leading one of parts at a fashion style the present time. Since then, the fashion of America could become the center of a world fashion by Jacqueline. Important thing is that she wore suitable cloths as a first lady who was a outstanding fashion leader.

Key words: Jacqueline Kennedy(재클린 케네디), Frist Lady(영부인), Young Fashion(영 패션), fashion leader(패션 리더), mass media(대중매체)

Corresponding author: Sung-Eun Jang, E-mail: se5577@yahoo.co.kr

Ⅰ. 서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유행은 시대적, 지역적, 문화적 특색을 지니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천천히 때로는 급진적으로 변화하여왔다. 이러한 유행의 변화와 흐름에는 유행을 선도하고 이끄는 패션 리더(Fashion Leader)와 그것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다. 패션 리더는 일반적으로 매스컴에 의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지도층의 인사들이나 정치인등을 포함하여, 직장이나 학교 등의 사회공동체에서 유행을 이끄는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러한 패션리더 중에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 특히 미국의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재클린 부비에 케네디(Jacqueline Bouvier Kennedy)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에도 미국인들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정치적인 활동의 업적보다도 한 시대의 유행을 이끈, 지적이며 우아하고 품위 있는 패션리더로 각인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재클린의 지도적 패션 성향은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3년 정도의 기간 중에 착용하였던 의상이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때까지 프랑스의 패션에 이끌어가던 미국이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써 재클린의 의상을 추종하고 열광하며 미국의 패션을 세계에 알리는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패션사에 큰 의의를 지닌 재클린의 의상에 관한 연구들은 의외로 많지 않으며, 재클린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고은(2000년)은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이은영(2001년)은 재키 스타일로 한정하여 특정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의상만을 연구하였고, 최현아(2003년)은 미국의 역대 퍼스트레이디의 취임식 의상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패션리더로서의 재클린 개인 중심의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재클린이 패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갖추고 있는 자질과 역할 등을 통해서, 한 시대의 패션을 이끈 전략적인 유행지도자이며 시대를 넘어선 패션리더로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재클린과 관련된 서적과 논문들을 통해 재클린의 성장배경과 시대적 배경을 재클린의 개인적 특성과 성향을 연관 지어 살펴보고, 재클린의 의상 사진집과 회고록, 패션책 등을 참고로 하여 퍼스트레이디 시절의 의상들을 각 아이템 별로 분석하여 그 당시 미국과 세계 패션을 이끈 패션리더로서 재클린 의상의 특징과 패션사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시대적 배경

1. 재클린 부비에의 성장배경과 패션

부유한 유년시절을 보낸 재클린 부비에(Jacqueline Bouvier)는 유명사립학교를 졸업 후, 대학 1학년인 18세에 사교계에 등장하게 되는데, 신문칼럼니스트 출리 니커보커[1]에 의해 '올해의 데뷔탄뜨[2](Debutante for the Year)'로 선정되었다.[3] 그 후 재클린은 2년간의 프랑스 유학을 통해 유창한 불어실력과 스페인어, 이태리어 등 외국어 실력을 갖추게 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프랑스문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조지워싱턴 대학에 편입하였다. 대학 4년 때에 '보그(Vogue)'지 주최의 패션 콘테스트 대회에 공모한 패션논문[4]에서 많은 경쟁을 뚫고 1등으로 선발되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5] 재클린은 결혼 전 신문사의 기자로 활동하며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존 F. 케네디를 만나 24세의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은 결혼당시에도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대중적 주목을 받았다. 재클린은 31세의 젊은 나이에 퍼스트레이디가 되었으며, 존 F 케네디의 인기만큼이나 재클린에게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재클린은 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진 만큼 그 패션 감각도 뛰어났고, 퍼스트레이디가 되면서 미국여성의 선망의 대상으로 미국 패션의 아이콘[6](American fashion icon)으로 떠올랐다. 그 당시 미

국의 상류사회의 사람들은 패션을 이끌어가던 프랑스 오뜨 꾸뛰르의 디자이너의 의상에 의존하였으며, 재클린도 유럽의 값비싼 고급의상을 선호하였다. 재클린의 이러한 고급 패션 취향은 1960년 선거전에서 선거의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7] 그 후 재클린은 이러한 점이 정치적으로 나쁘게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고, 공식석상에서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의상을 착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올레 카시니(Oleg Cassini)를 전용 디자이너로 고용하여 재클린이 존 F. 케네디의 암살 이후 화이트 하우스를 떠날 때까지 그와 의상을 의논하였다. 재클린의 의상은 대통령의 아내로서의 우아하며 품위 있는 분위기와 함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젊고 생기 있는 영 패션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재클린의 패션이 급속도로 퍼져나가, 매력적이고 세련된 상류사회 여성들에게 패션의 표본이 되었다. 특히 카시니가 디자인한 심플하고 단정하며 화사한 색상의 'A' 라인의 수트는 폭넓게 유행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스커트와 드레스를 착용하던 시기에 재클린은 공식석상이 아닌 장소에서는 대담하게 바지를 착용하였으며, 반바지와 승마용 의상들을 착용하면서 젊은이들의 관심의 대상으로도 떠올랐다.. 많은 미국 여성들은 퍼스트레이디인 재클린이 착용하는 통 좁은 바지와 몸에 붙는 캐주얼한 상의와 머리를 묶는 스카프와 큰 선글라스를 흉내 내었다.[8]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 맞는 이미지를 패션으로 완벽하게 만들어가던 재클린은 화이트하우스를 떠나 그리이스의 선박왕인 아리스토틀 오나시스(Aristotle Onassis)와 재혼한 후에는 다시 유럽의 디자이너들의 옷을 선호하며, 무분별하고 사치스러운 다양한 의상을 착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관심 속에서 이야기 거리가 되었다. 1975년 오나시스 사후에 재클린는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기존의 무분별한 사치적인 면은 사라지고 보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패션 스타일로 변화하게 된다. 재클린은 자신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의상도 변화 시켜가며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재클린이 퍼스트레이디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던 시기의 의상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전략적으로 패션을 활용하였고 재클린을 패션리더로써의 이미지를 확고히 뿌리내리게 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 퍼스트레이디 시절의 시대적 유행경향

재클린 케네디가 퍼스트레이디가 된 것은 1961년이었다. 1960년대는 세계가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시대로 1961년 소련이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을 시작으로 하여, 1963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1968년 프랑스 파리의 5월 혁명과 1969년 인류 최초의 달 착륙 등 큰 사건들이 세계를 흔들었고, 이전에는 중심세대가 아니었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세계를 갈구하게 되었다.[9] 즉 이시기는 전 세계를 통해서 전후 세대의 출생률이 거의 2배에 이르러 전인구의 5%를 차지하던 청소년 인구가 10%에 이르며 인구의 높은 비율을 청소년이 차지하였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훨씬 높은 경제적 여유를 누렸고, 무상교육의 해택을 받을 기회가 증가하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들의 활동과 개성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들의 생활방식에 맞는 패션을 요구하게 되면서 그전까지 어른들을 위한 패션에서 젊은이들의 위한 패션으로 변화되는[10] 영 패션(Young Fashion)의 시대였다.[11]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젊은 퍼스트레이디의 등장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1960년대의 미국은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맞이하며 실용주의와 기능주의가 널리 확산되어 대량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소수가 이용하던 T·V가 일반적으로 보급되었고, 곧이어 칼라 T·V가 등장했으며, 영화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 유행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대중매체의 확산 또한 재클린의 패션을 알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전의 다른 어느 퍼스트레이디보다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었고 재클린은 최초로 매스컴 전담 비서를 고용하며 자신의 공식적 활동과 사적 활동을 적절하게 노출시키며 역할을 수행하였다. 패션에 있어서

19세기까지는 파리가 세계의 패션을 이끌어 가고 있었으며 전후에 영국이나 미국은 그들의 패션을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였지만[12] 세계 유명 디자이너는 파리에 거주하였으며 그들이 발표한 패션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으로 그들의 디자인이 복제되었다. 전후 프랑스의 패션을 이끌어가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 지방시(Hubert de Givenchy)등이 패션을 이끄는 주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기존의 오뜨 뀌뛰르(Haute couture)들이 복제되어 기성복(ready-to-wear)의 형태로 대량생산을 하여 저렴한 가격에 대중들에게 다가가게 되면서 의류산업체도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13] 전후 패션을 이끌어가던 스타일로는 허리를 조이며 스커트 단이 퍼지는 'X'스타일인 크리스찬 디올의 뉴 룩(New Look)에서 변화하여 허리를 강조하지 않고 일자로 떨어지는 'H'라인과 'A'라인, 'Y'라인 등이 이어서 발표되었고[14] 1957년 색 드레스(Sack Dress)의 등장을 기점으로 의복 형태의 변화를 보였다. 전후 다시 부티크를 열게 된 샤넬(Gabrielle Chanel)은 1960년대 초 무릎길이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정장과 드레스들을 새롭게 다시 선보인 것을 계기로 보다 젊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영 패션의 유행이 등장하였다. 여성들은 스포츠, 자동차 등의 확산과 더불어 밝고 활동적이며 나이에 맞는 옷을 요구하게 되고 이것은 캐주얼웨어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꾸밈이 없는 헐렁한 풀오버와 블루진, 통이 좁은 바지들이 유행하였다.[15] 재클린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프랑스의 패션을 수용하였고 그것을 다시 자신의 이미지로 각인시키며 미국 뿐 만이 아니라 세계의 패션을 이끌어 갔다.

Ⅲ.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과 이미지 형성

1. 백악관에서의 역할

퍼스트레이디는 남편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직책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 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규약이 제시 되어 있지 않으며, 탄핵이나 파면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단정 지어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16] 미국의 전 퍼스트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은 "퍼스트레이디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것은 역할이다."[17] 라고 말했다. 이러한 퍼스터레이디의 역할을 함성득의 영부인론[18]에서는 〈표 1〉에서와 같이 공식적인 역할, 정치적 역할, 정책적 역할 등 3가지로 나누어 구분 지었다.

〈표 1〉 퍼스트레이디의 역할

퍼스트레이디의 역할	공식적 역할	공식적 역할은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역할로, 퍼스트레이디가 해야 할 기본 역할이다. 공식적 안주인으로서 차 대접, 저녁 만찬, 외빈접대, 대통령의 우호적인 혹은 적대적인 사람들 환대 같은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치적 역할	정치적 역할을 묵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대역을 수행하거나 그들 남편을 대신해 여행을 하는 것이 해당한다.
	정책적 역할	퍼스트레이디가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적 역할은 그들이 그들만의 퍼스트레이디용 사업을 통해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분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내각회의 참석과 퍼스트레이디 집무실의 발전 등 제도적 요인의 발전으로 임시조직이나 위원회의 의장으로 자리하면서 실제적 측면에서 정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전후 1945년부터 1974년까지[19]의 퍼스트레이디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전통과 관습에 의해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시기의 퍼스트레이디들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한 시기였지만 적극적인 역할 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던 전임자의 시기[20](1909-1945)와는 다른 소극적이고 수축된 마음가짐을 갖고 백악관 생활을

하였다. 재클린은 극도로 사적인 활동에만 치중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지만,[21] 재클린이 만들어낸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역할수행을 해나갔다. 재클린이 미국과 세계에 미친 영향력에 자신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놀라워했다. 유럽과 인도 지역을 공식 순방하는 동안, 재클린은 백악관에서 맺었던 외국과의 우방관계들을 더욱 깊게 하였다. 그러나 재클린은 활동주의자가 아니라 탐미주의자로서 더 크게 공헌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식안을 지닌 그녀는 그런 안목으로 미국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것들을 모두 모아 백악관을 진열장으로 만들었다. 재클린은 멋과 문화와 품위의 권위자가 되고 싶어 하는 미래의 퍼스트레이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같이 케네디뿐만 아니라 재클린의 역할도 케네디 행정부에 영원한 족적을 남겼다.[22] 또한 재클린은 이전의 미국의 여인상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예술적 취미나 선택은 여자다움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되었다. 그때까지 미국의 이상적인 미인이라고 하면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풍성할 뿐, 머리는 비약하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지성을 아울러 갖춘 여성의 출현에 '변화해가는 미국여성'을 실감케 하였다.[23] 특이할 만할 것으로 재클린은 처음으로 퍼스트레이디전문 매스컴 전문 비서를 두었다. 이 후부터 모든 퍼스트레이디는 프레스담당 비서를 두게 되었다.[24] 재클린은 매스컴 전문 비서를 통해서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보다 전략적으로 만들었다. 즉 보이고 싶은 것과 보이고 싶지 않은 이미지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매스컴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피하며, 때로는 매스컴을 철저히 이용하며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시켰다.

2. 의상을 통한 재클린 케네디의 이미지 형성 단계

재클린 케네디의 의상의 변화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우선 케네디 상원의원의 아내이며 대통령후보의 아내의 역할을 하던 시기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기이며, 둘째, 퍼스트레이디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던 시기의 우아하며 지적인 품위를 지닌 이미지의 시기, 셋째, 오나시스와 재혼한 시기로 상류사회의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화려한 제트족[25] 스타일의 이미지의 시기, 넷째, 재클린이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일하던 시기의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의 4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클린은 모든 시기에 매스컴의 표적이 되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특히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하던 시기의 의상과 악세사리, 모자, 장갑, 구두 등은 많은 여성들이 추종하는 패션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재클린은 그녀의 역할과 위치에 어울리는 패션으로 그녀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만들어가며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시대를 초월한 패션 리더로써 그녀의 스타일은 젊고 품격 있는 지적인 우아함을 지닌 패션 스타일의 대명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의 아내시절 프랑스 꾸뛰르의 의상을 선호하던 재크린의 취향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칠 쟁점으로 등장한 후, 재클린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를 퍼스트레이디의 전속 디자이너로 두고 재클린의 이미지를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재클린의 의상을 담당한 디자이너는 미국출신의 올레 카시니로 파라마운트사의 전 코스튬 디자이너였고, 공식석상의 많은 의상을 재클린과 함께 만들어 나갔다. 재클린은 공식석상에서 최대한 미국 디자이너의 의상을 착용함으로서 재클린의 이미지를 만들어 갔지만, 프랑스의 고급 의상에 대한 갈망은 끊이지 않아 항상 프랑스 꾸뛰르의 흐름을 체크했다. 재클린의 세련된 패션 감각에는 막대한 의상비의 지출이 있었다. 미국 디자이너의 의상을 많이 착용하면서도 프랑스의 여러 꾸뛰르에서 청구서가 전달되었는데, 1961년 7월 4,000달러의 청구서가 지방시[26]로부터 날아 왔다. 그것은 3개월 동안 구입 내역을 합산한 것이었다. 그 당시 재클린의 비서의 연봉은 주말까지 일한 것을 포함하여 4,80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었다.[27] 카시니는 백악관에서 머물렀던 3년 동안 재클린을 위한 이브닝 드레스와 일상복으로 약 300벌의 비슷한 의상을 만들었다고

〈표 2〉 재클린의 의상을 통한 이미지 형성 시기

시기	기간	의상의 특징	주요 디자이너
제1시기	결혼 후 (1953-1960)	프랑스 오뜨 꾸뛰르의 패션을 선호	디올, 사넬, 지방시 (프랑스 디자이너)
제 2시기	퍼스트레이디 시절 (1961-1964)	미국의 디자이너의 심플하고 우아하며 지성적인 품격을 지닌 절제된 스타일로 장식을 피하고 무늬가 두드러지지 않는 시스 원피스, A라인 수트, 필박스 모자, 장갑, 진주목걸이, 부풀린 단발머리	올레 카시니 (미국 디자이너)
제 3시기	재혼 시절 (1968-1976)	의상에 대한 무절제한 소비와 프랑스의 오뜨 꾸뛰르의 의상을 선호하며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 커다란 선글라스,	발렌티노, 지방시 꾸레주, 이브생 로랑, 마담 그레 랑방 (프랑스 디자이너)
제 4시기	편집장 시절 (1978-1994)	단정하고 우아하면서도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의상을 선호하며 위엄을 갖춘 이미지	캐롤리나 헤레라 (미국 디자이너)

하며,[28] 1962년 한해에 400벌쯤의 다른 의상을 번갈아 입었다고 발표한 여성기자도 있었다. 당연히 매스컴으로 부터의 비판이 잇따랐다.[29]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클린이 몸에 걸치고, 머리에 쓰고, 손에 들고, 신었던 모든 것이 유행이 되었다. 재클린의 젊고 매력적인 모습, 아름답고 독특한 패션 스타일, 우아하고 귀족적인 생활상 등은 기존의 미국 정치가 부인들이 대변했던 중산층 주부 이미지에 식상해 있었던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30] 이런 모든 점에서 재클린은 철저하게 그녀의 역할에 맞는 이미지를 의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략적인 패션리더였다.

Ⅳ. 전략적 패션리더로서의 재클린 캐네디의 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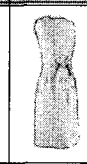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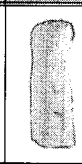
1. 새로운 퍼스트레이디 이미지 형성을 위한 의상의 특징

재클린의 퍼스트레이디 시절의 착용하던 아이템을 원피스, 투피스, 앙상블, 코트, 드레스로 크게 나누어보면, 특히 원피스나 투피스 혹은 앙상블, 코트는 공식적인 여행지나 외부 활동에서 많이 착용하였고, 이브닝드레스는 공적인 행사에 착용하였다. 재클린은 올레 카시니를 전용 디자이너로 두고 그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던 디자이너인 하버트 선드헴(Hervert Sondheim), 존 모스(Joan Morse), 도널드 브르크(Donald Brooks), 쿠스타프 태슬(Gustave tasell), 노만 노렐 (Norman Norell),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등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옷들을 다양하게 착용하며 그들은 유명하게 만들다. 본 연구에서는 재클린이 착용하던 아이템을 원피스, 투피스나 앙상블, 코트, 이브닝드레스로 나누고, 여러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였다.

〈표 3〉[31]의 아이템은 원피스로 재클린이 대통령 후보자의 아내로 선거 시절 착용한 의상을[32]포함하여 살펴보면, 색상은 대체적으로 밝은 계통의 의상이 많았고[33] 무지의 실크나 울, 린넨 등의 고급 소재의 사용이 많았으며, 소매 없는 민소매에 무릎길이의 원피스로 몸을 조이지 않는 'H'라인과 'A'라인의 실루엣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허리절개에 잔주름과 밴드를 이용한 심플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심플하고 깨끗하며 단정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일상복으로 여성의 민소매 의상이 보편적이지 않던 시기에 재클린의 민소매의 심플한 원피스 차림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였고,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재클린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표 4〉는 재클린이 착용한 투피스와 앙상블의 의상들로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착용하거나 공식방문 여행지 등 일상생활에 착용한 의상(day suit)들로 투피스 또는 원피스에 재킷으로 된 앙상블이다. 앙상블의 원피스는 대부분 소매가 없는 민소매 스타일로, 프린세스 라인의 장식 없는 심플한 'A'라인이나 'H'라인이 대부분이며 색상은

〈표 3〉 재클린의 원피스 스타일

	선거		백악관			여행지					
	1	2	3	4	5	6	7	8	9	10	11
원피스											
색상	fuschia	gray	beige	yellow	deep pink	pale mauve	turquoise	pink	pink	yellow	denim blue
실루엣	A	H	H	H	H	A	H	H	H	A	O
소재	silk	wool	wool	silk	silk	linen	silk	silk	silk	silk	linen
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디자이너	Givenchy	Givenchy	Givenchy	Oleg Cassini	Givenchy	Oleg Cassini	Hervert Sondheim	Joan Morse	Donald Brooks	Gustave tasell	Norman Norell

〈표 4〉 재클린의 투피스, 앙상블 스타일

	선거		백악관		여행지						
	1	2	3	4	5	6	7	8	9	10	11
투피스& 앙상블											
색상	yellow	white & black	dark red	deep pink	red	pale yellow	ice blue	deep pink	pale yellow	hot pink	scarlet. orange. hot pink
실루엣	H	A	A	H	H	A	A	H	A	A	A
소재	wool	wool	wool	silk	wool	wool	sillk	wool	Linen	silk	silk matal
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디자이너	Givenchy	Bob Bugnand	Chez Ninon	Bergdorf Goodman	Pierre Cardin	Oleg Cassini	Gustave tasell	Givenchy	Oleg Cassini	Oleg Cassini	Gustave tas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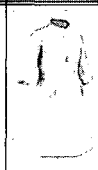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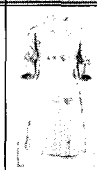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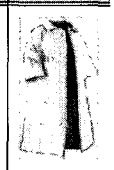
원색의 계열로 특히 붉은 계통[34]의 의상이 많다. 재클린이 착용한 수트는 '소프트 수트(Soft Suit)'라고 불리어져, 딱딱한 느낌이 배제된 여성스럽고 간결한 느낌으로 밀러터리 룩(Military look)의 요소가 반영된 젊고 활동적인 스타일로[35] 소재는 부드러운 울 트윌지와 실크, 린넨 등 고급소재의 사용이 많다. 재킷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허리선에서 10-15cm 정도 내려오는 짧은 형태를 이룬다. 스커트의 길이는 원피스와 마찬가지로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는 길이로 프랑스를 포함 미국의 여러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여러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착용했으나 전체적으로 심플함을 기본으로 하여 몸에 꽉 끼는 스타일보다는 허리부분의 여유분을 둔 스타일이 많고 네크라인 부분은 칼라가 없고 목선에 가까운 라운드형의 네크라인이 많으며 카울 칼라(cowl collar)와 테일러드 칼라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매길이는 대체적으로 5부에서 8부의길이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는 장갑을 착용하였고 필박스 모자(Pillbox Hat)[36]를 애용하였다. 필박스 모자의 기본디자인은 1930년경에 처음 소개가 되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시 나타났다가 그 후 재클린에 의해 크게 유행되면서 재클린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가 되었다. 케네디의 취임식 행사에서도 케네디 암살 당시에도 재클린은 필박스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표 5〉는 재클린이 착용한 코트로 대부분이 공식적인 해외 방문시 착용한 것으로 공식방문지에서는 미국 디자이너의 코트를 많이 착용하였고, 색상은

밝은 파스텔톤의 색상으로 무늬가 없는 부드러운 고급의 무지소재의 사용하였다. 실루엣은 상체는 몸에 맞고 허리 아래부터 A라인으로 되었고 코트와 같은 소재로 만든 큰 싸게 단추가 특징이다. 또한 큰 단추에 비해 칼라부분이 특별히 강조된 디자인은 피하고 있으며, 코트의 소매길이는 8부소매가 많이 나타났고 공단의 긴 장갑과 함께 착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A라인의 실루엣도 재클린 스타일의 트레이드마크로 크리스찬 디올이 'New Look'을 발표한 이후 1950년도 중반에 처음 선보였다. 초기에는 스커트부분이 많이 부풀려 있었으나 그 후 심플한 라인으로 다시 소개 되면서 1960년대 초 재클린의 착용으로 인하여 여성들에게 사랑받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세계 각국에 수백만 벌 이 복제되었다.[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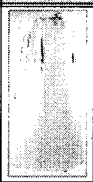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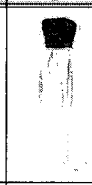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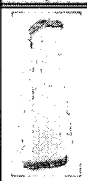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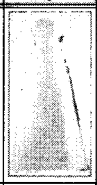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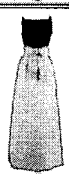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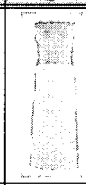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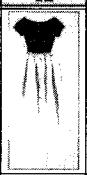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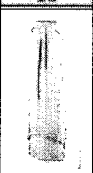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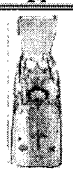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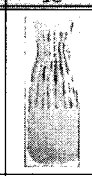
양한 색으로써 전투시 달았던 것에 그 근원이 있다.[38] 케네디가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클린은 아들 존스를 낳고 병원 침대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자신이 취임식장에 입고 싶은 드레스에 대해 디자이너 올레 카시니에게 9장에 걸친 편지를 보냈다고[39]한다. 재클린의 이브닝드레스는 대부분이 공식적인 행사나 국빈을 맞이하는 경우, 또는 외국 방문시 만찬 등에 착용한 경우이므로 어느 아이템보다도 고급스러운 우아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장식이 배제된 절제된 화려함으로 인해 젊음과 활동적 실용성과 심플함을 지니고 있다. 재클린의 이브닝드레스는 케이프(cape)나 가운(gown), 스톨(stole), 숄(shawl) 보레로(bolero)등과 한 세트로 구성되어 착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색상은 아이보리나 파스텔의 부드러운 색상이 많았고, 소재의 경우도 다

〈표 5〉 재클린의 코트 스타일

	선거	취임식	백악관	방문 · 여행지						
	1	2	3	4	5	6	7	8	9	10
코트										
색상	scarlet	beige	ivory	apricot	green	pink	green	pale blue	yellow	apricot
실루엣	H	A	H	H	H	A	A	A	A	A
소재	wool	wool	wool	linen	wool	silk, wool	silk	silk.wool	silk	silk
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무릎길이
디자이너	Givenchy	Oleg Cassini	Gabrilie Chanel	Marc Bohan	Gustave Tassell	Oleg Cassini	Oleg Cassini	Oleg Cassini	Gustave Tassell	Oleg Cassini

〈표 6〉은 재클린이 착용한 이브닝드레스이며 대부분 공식적인 행사에 착용한 의상들로 다른 어느 아이템보다도 우아함과 지적인 품위를 잘 나타내주는 아이템이다. 이브닝드레스에는 공식석상에서 재클린의 이미지를 확정지어준 것은 취임식 때 착용한 이브닝드레스와 취임식 행사에 착용한 드레스가 포함되어 그 후 그녀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취임식에 착용한 카시니의 이브닝드레스는 더블 페이스트 실크 새틴 트윌 재질로 웨이스트 부분의 유일한 장식인 장미꽃 모양의 코케이드는 충성의 표시와 특정한 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최고급의 실크와 크리스탈 비즈나 자수, 레이스, 스팽글 등과 같이 어우러져 화려하지만 절제된 디자인으로 기품이 있으면서도 화사하고 젊은 분위기를 지닌 직선적 심플함을 지니고 있다. 스커트의 폭도 대체적으로 'H'라인과 폭넓지 않은 'A'라인의 형태가 많으며 이브닝드레스의 길이는 신발의 앞부분이 보일 정도로 활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 특히 각국 방문시 만찬에 착용된 의상들은 방문국의 이미지를 넣은 자수나 소재, 색상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외교적인 전략을 의상을 통해 센스있게 표현하였다.

〈표 6〉 재클린의 이브닝드레스 스타일

	취임식		백악관								
	1	2	3	4	5	6	7	8	9	10	11
이브닝 드레스											
색상	ivory	ivory	ivory	ivory	black	white	candy pink	yellow & break	light green	mauve	ivory
실루엣	A	A. H	H	A	H	H	A	A	H	H	A
소재	silk	silk	silk	silk. beads	silk	silk. spangle	silk	silk. velvet	silk. beads	silk	silk
길이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디자이너	Oleg Cassini	Bergdorf Goodman	Oleg Cassini	Oleg Cassini	Oleg Cassini	Oleg Cassini	Guy Douvier	Chez Ninon	Oleg Cassini	Oleg Cassini	Oleg Cassini
	워싱턴 행사					방문 · 여행지					
	12	13	14	15	16	17	18	19	9	20	21
이브닝 드레스											
색상	ivory. red	pink	pink. gold	green	ivory	ice blue	blue	pink. white	black	ivory	shell pink
실루엣	H	H	H	H	H	H	H	A	A	A	H
소재	silk	silk. beads	silk	silk	silk	silk	silk	raffia lace	silk. wool	silk. embroidered	silk
길이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full length
디자이너	Chez Ninon	Oleg Cassini	Joan Morse	Oleg Cassini	Oleg Cassini	Chez Ninon	Oleg Cassini	Oleg Cassini	Oleg Cassini	Givenchy	Oleg Cassini

2. 재클린의 의상의 대표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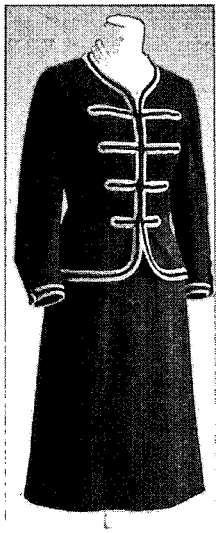
미국의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재클린의 의상들을 그 시대 유행하던 의상과 비교하여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림 1〉의 7부 소매의 색 드레스(sack dress)[40], 〈그림 2〉의 트레피즈 라인(Trapeze Line), 〈그림 3〉의 울 저지 수트(wool jersey suit), 〈그림 4〉의 H 라인의 이브닝드레스, 〈그림 5〉의 프렌치 슬리브(french sleeve)의 코트[41] 등은 1950년대 후반과 1960 년대 초반 유럽 디자이너들에 의해 선보인 디자인들로 재클린이 선호하던 스타일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재클린은 그 시대의 유행의 흐름에 속하여 있었으며[42] 어느 누구보다도 유행을 빠르게 자신의 이미지에 맞도록 선택하여 수용하고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대중에게 전달, 확산시키는 의견 지도자[43]로서 유행지도자[44](트렌드세터: trendsetter)또는 패션 리더(fashion leader)의 역할을 하였다.

재클린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 대표적 의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의 큰 단추가 달린 'A' 라인 코트와 필박스 모자, 〈그림 7〉의 소매 없는 시스 드레스(sheath dress), 〈그림 8〉의 큰 단추가 달린 부드러운 수트 스타일 (soft suit)[45], 〈그림 9〉의 어깨끈 없는 심플한 이브닝드레스, 〈그림 10〉의 부풀린 헤어스타일[46]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재클린이 패션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클린은 그 시대의 유행경향을 수용하면서 그 유행들 중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는 의상을 전략적으로 계획하여 선택[47]하였다. 둘째, 유럽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대량소비시

〈그림 1〉 Jacques Grfife(1958년)

〈그림 2〉 saint-Laurent (1957년)



〈그림 3〉 Chanel (1950년대후반)

〈그림 4〉 Balenciaga (1961년)

〈그림 5〉 Balenciaga (1955년)

〈그림 6〉 A line coat (1961년)

〈그림 7〉 sheath dress (1961년)

〈그림 8〉 soft suit (1962년)

〈그림 9〉 evening dress (1962년)

〈그림 10〉 Bouffant Hair (1963년)

대를 맞이하여 그들은 의상을 주문 제작하는 방식에서 기성복으로 생산방식을 바꾸면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양질의 새로운 감각을 지닌 기성복의 시대를 열면서 세계 각국에 그들의 디자인이 복제되어 적당한 가격에 대중시대, 화학섬유의 시대에 보조를 맞추면서 패션의 대중화를 전하는 시대 변화가 있다.[48] 셋째, T·V의 대중적 확산은 재클린의 스타일을 매스컴을 통해 그대로 대중들이 보고 수용할 수 있었다. 넷째, 영 패션의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의 퍼스트레이디보다 훨씬 젊은 나이로 패션에 젊음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재클린의 스타일을 대중에게 다가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재클린의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

V. 결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동경은 생활의 모든 것을 유행으로 만들어 더 빠른 변화와 자극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유행을 통해 각개인의 생활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영향을 주기보다는 더 상업적 흐름에 이용되고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감보다는 불안감과 불확실감이 증대되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개인적 소외감을 느끼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행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는 기존의 규칙이나 흐름을 파괴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이어 가고 있지만, 결코 충분한 만족감은 얻을 수 없다. 이렇듯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맹목적인 상황으로 빠져드는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패션사의 한 장을 이루고 있는 유행의 지도자인 패션리더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그들 중에서 재클린 케네디는 퍼스트레이디 시절에 의상을 통해 그 역할에 맞는 이미지를 창조해 냄으로서 우아함과 기품 있는 미국의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이루어낸 역사적 존재이며,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녀가 착용하였던 의상들은 많은 여성들이 지적이며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스타일로써 착용되고 있다. 이러한 패션리더로서의 재클린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성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상류사회의 유행의 선도자로서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 패션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한 여성이다. 재클린이 비록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재클린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존재성을 강하게 각인시켰다. 본 연구를 통해 재클린이 패션을 이끌어 갈수 있었던 특징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클린은 다른 퍼스트레이디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였으며 변화하는 시대를 잘 표현한 젊고 밝은 이미지로 '변화해가는 미국 여성'을 실감하게 하는 대표적 인물이었다.

둘째,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에 적합한 소박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꾸미지 않은 기능적이며 활동적인 심플함을 통해 미국 상류사회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셋째, 미국의 상류사회가 프랑스 패션에 의존하던 시절에 미국적 패션의 이미지를 확립시켜 미국이 패션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의상을 통한 한 개인의 이미지의 정립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것에서 탈피한 것만이 새로운 유행이 아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유행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여 정체성 없는 '흉내 내기 패션'에서 벗어나 각자의 역할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행의 흐름을 재정립하여 소비로만 치닫는 유행에서 개인의 이미지의 정립과 역할의 충실을 기 할 수 있는 의생활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1) 퍼스트레이디 시절 재클린의 전용 디자이너 올레 카시니의 형인 이고르 카시니의 필명.
2) 처음으로 사교계에 나가는 여성을 말함.
3) Pamela Clarke Keogh저, 정연희, 정인희 역 (2003). 재키스타일. 서울: 푸른솔, p. 93.
4) 그녀는 학창시절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쓴 글 중에 '건강 및 머리카락과 피부, 치아 손톱의 청결은 아름다움을 가구는 기초다. 계획을 세워 규칙적으로 손질한다면 약간의 노력만으로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즉 최고의 차림새를'이라고 쓰고 있다.
5) 이은영 (2001). '재키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6) 패션 스타일이 숭배와 찬앙을 받는 상징적 존재를 일컬음. '아이콘(Icon)'은 종교에서 쓰이는 용어로 성스러운 상징물을 가리킨다.
7) 이은영. 앞의 논문, p. 16.
8) Sara Pendergast, Tom Pendergast (2004). *Fashion, Costume, and Culture, 5.* The Gale Group, Inc. p. 923.
9) 東京服飾文化研究財團 (2002). ファッション 18世紀から現代まで. 東京: Taschen GmbH. p. 511.
10) François Boucher, Yvonne Deslandres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p. 423.

11) 정흥숙 (2000). 서양복식문화사(제6개정판). 서울: 교문사, p. 388.

12) James Laver (1996). *Costume & fashion(개정판)*. Thames and Hudson: New York, p. 254.

13) Sara Pendergast, Tom Pendergast, 앞의 책, pp. 848-849.

14) 금기숙외 9인 (2003). Fashion 현대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p. 227.

15) François Boucher, Yvonne Deslandres, 앞의 책, p. 418.

16) 최고은 (2000). 퍼스트 레이디 역할에 의한 유형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7.

17) Hamish Bowles (2001). *Jacqeline kennedy: The white house year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 Bulfinch Press Book/Little, Brown and Company: New York, p. 5.

18) 함성득 (2001). 영부인론. 나남, p. 52.

19) Supportive Spouses: 대중적 시대의 부인유형의 시기. (1945-1974)

20) Aspiring Spouses: Developing New Roles의 시기. (1905-1945)

21) 최고은 (2000). 앞의 논문, p. 73.

22) Kati Marton저, 이창식 역 (2002). 숨은 권력자 퍼스트레이디, 이마고, p. 163.

23) 多賀幹子 (1990). **その名はアメリカ大統領夫人(ファースト・レディー)—41の愛と野望**. 東京: 徳間書店, p. 51.

24) 多賀幹子, 위의 책, p. 129.

25) 제트기를 이용하여 유람하는 부자들을 일컬음.

26) 재클린은 위베르 드 지방시의 옷을 가장 좋아하였고 원했으며 지방시가 추구하는 심플함과 깨끗한 디자인, 모던한 실루엣, 고급스럽지만 장식적이지 않은 옷감을 사용하는 그의 디자인을 정확하게 카시니에게 전달하였고 카시니의 디자인을 한층더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였다.

27) Pamela Clarke Keogh, 앞의 책, p. 44.

28) Pamela Clarke Keogh, 위의 책, p. 49.

29) 多賀幹子, 앞의 책, p. 128.

30) 이은영, 앞의 논문, p. 8.

31) Hamish Bowles, 앞의 책, 그림 자료 〈그림3, 4, 5, 6〉의 출처.

32) 선거시절 착용하던 의상 중 퍼스트레이디가 되어서도 많이 착용했던 의상을 선택하였다.

33) 재클린에게는 검은색 옷이 별로 없었다. 퍼스트레이디로서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밝은 파스텔톤의 노란색, 핑크색, 살구색을 선호했다.

34) 재클린은 개인적으로 핑크색상을 선호하였다.

35) Oleg Cassini (1995). *A thousand days of magic*. New York: Rizzoli, p. 45.

36) Sara Pendergast, Tom Pendergast, *op. cit.*, p. 876.

37) *Ibid.*, p. 901.

38) 최현아 (2003). 미국대통령부인의 의생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64.

39) Ralph G. Martin (1983). *A hero for our time*. New York: Macmillan.

40) James Laver, *op. cit.*, p. 259.

41) 東京服飾文化研究財團, 앞의 책, 그림자료 〈그림 2〉 p. 529, 〈그림 3〉 p. 554, 〈그림 4〉 p. 539, 〈그림 5〉 p. 543.

42) 사람들은 옛것을 기초로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만들기를 원하지, 전혀 새로운 참의미의 유행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유행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이는 대신에 스스로를 갱신하는 정도로 만족한다. 옛것을 채택하고 다시 젊어지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옛것만이 아니라 망각 속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재인식된 옛것이 부활되기도 한다. Marc-Alain Descamps, 강주헌 역 (1999). 허영과 문화의 유행심리. 사피엔티아, p. 29.

43) 패션에서 의견지도자는 어떠한 스타일에 정통(正統)을 제공하는 기능을 작용하는데 King, C.W.에 의하면 유행지도자란, 특정한 타입의 의견지도자로, 적절한 기준을 한정짓고 보증(保證) 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이들 자신을 패션과 관련된 미디어에 드러내고 패션의 지식에 흥미가 있다. 유행 지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패션잡지등과 같은 패션에 관계된 미디어에 더 많이 등장하고, 패션에 대해 더 많은 흥미와 지식을 지니고 있다. 권혜숙(1989). 유행확산이론과 유행지도력. 한국복식학회, 13, p. 105.

44) 유행지도자(trendsetter)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면 기호형성자(tastermaker), 패션 지도자(Fashion leaders), High mobieles 등과 더불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논문, p. 105.

45) Dominick Dunne (2001). *Jackie the clothes of camelot*. New York, 그림자료, 〈그림 6〉 p. 6, 〈그림 7〉 p. 69, 〈그림 8〉 p. 59.

46) Hamish Bowles, *op. cit.*, 그림 자료 〈그림 9〉 p. 98, 〈그림 10〉 p. 75.

47) 재클린은 새로운 퍼스트레이디의 이미지를 위하여 그녀의 패션을 간결한 라인, 젊음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것, 우아하며 지적 품위가 있되 너무 화려하지 않도록 표현되는 패션 스타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48) 東京服飾文化研究財團, 앞의 책, p. 512.